

□ 지난 한해 대학주보가 고민해온 것들과 앞으로의 지향점

대학신문이여, 대학을 안고 날아라



토요일 새벽,
밤새 원고를 쓰고 몽롱한 눈
으로 자판을 마주하다 보면
"신문이 우리에게 무엇인가"하
는 근원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신문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
이고 우리가 만든 신문을 보는
사람에게 또 어떤 의미인가?

신문을 만드는 주체로서 스스
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
에 대해 독자들은 무책임하거나 비
전이 없다는 비판을 할 지도 모르겠
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끊임
없는 되돌음이야말로 발전적인 미래
를 위한 가장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창간 43주년을 맞은 지금이 지난 1
년동안 대학주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지도를 펼 때라는 생각으로 지난 1년
간의 대학주보와 신문을 만들면서 우리가 가
졌던 생각들을 독자와 공유하는 계기를 만
드려고 한다.

흔히 대학언론의 특성으로 비상업성과 진보
적 논조, 균질적인 수용자, 비전문가들에 의한
제작등을 꼽는다.

광고수익이나 이해 관계등에 얽혀 있는 기
성언론과는 달리 대학언론은 그런 것들로 부
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진보적 성격을 띠
고, 대학교수
원이라는 균
질적인 수용
자를 지니며
기자가 아닌
학생에 의해
신문이 제작
된다는 뜻이
다.

또 대학은
교육과 연구
비판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 진리와 정의를 가
르치는 곳이라는 인식과 한국 사회에서 그간
대학이 가져왔던 사회적 함의를 살펴 볼때도
대학언론이 우리 사회의 대안적 언론으로 기
능해야 할 근거는 얼마든지 마련된다.

문제는 실제로 90년대를 넘어서 세기의 전
환을 불과 1년 남짓 남겨 놓고 있는 이 시점
에서도 위와 같은 논리가 현재의 대학사회에
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것이다.

대학언론이 통제의 그늘로부터 비교적 자

유로워진 지난 87년으로 부터 11여년이 지난
98년의 초여름, 대학과 대학언론의 지형이 본
래의 숭고한 뜻을 실천해 낼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가?

물론 회의적이다.
대학이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라는 이념은
취업의 도구조차 되지 못하는 현재의 대학앞에
무기력한 이상론 이상일 수 없다. 대학언론이
가진 특혜·비상업성으로 인한 진보적 성향과
균질적인 독자의 확보라는 측면도 마찬가지
다. 대학생들은

더 이상 하나의
확안에 그어질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성향을
가지게 되었으
며 이는 달리말
해 개인적이라
는 의미로도 통
한다.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대
학신문 기자직에 학생들이 점점 지원하지 않
는 결과로 나타났고 많은 대학신문사들이 기
자 수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언론이 처한 또 하나의 상황은 전문적
인 식견을 갖춘 대안언론들이 많이 생겨 났다
는데 있다. 사회 비판적 시각과 전문적인 식
견까지 갖춘 대안언론들의 출현으로 대학언론
은 비판적 기능에서 만큼은 과거에 가지고 있

던 독보적인 위
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무가지로 배포되는 각종 대학관련 신문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그들의 기획이나 성
향이 때로는 오락적이거나 일시적인 문화현
상진단에 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 그때의
대학문화흐름을 포착해 내는 기획능력은 무시
할만 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결국 지금의 대
학신문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셈이
다.

진퇴양난에 처한 대학신문. 위기를 넘기고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
가?

그것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
는 것이 아닐까 한
다. 대학과 신문
이라는 두개의
틀거리속에 존
재하는 대학언
론은 대학안에
서 만큼은 누
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독
보적인 영역
을 가지고 있
고 따라서 학내
커뮤니케이션의
선구적 역할을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대
학주보도 이런방
향을 추구해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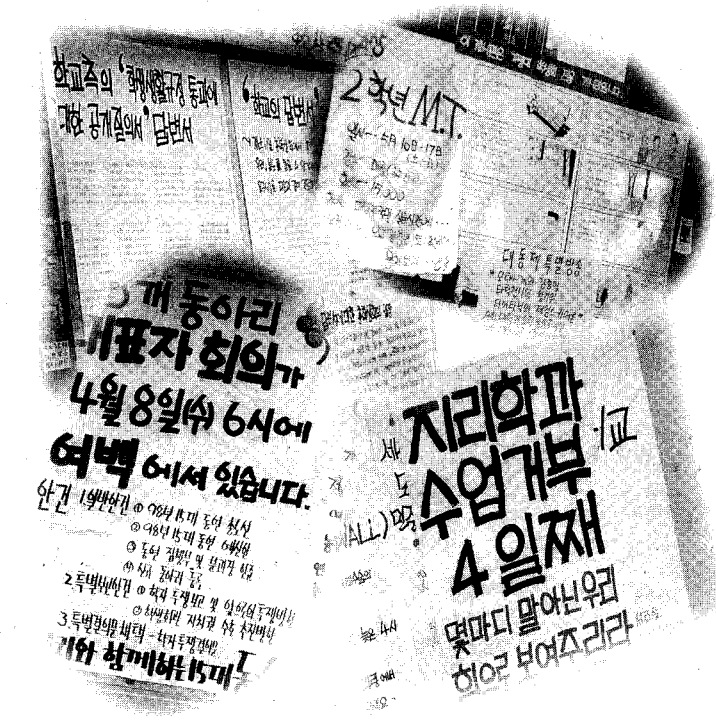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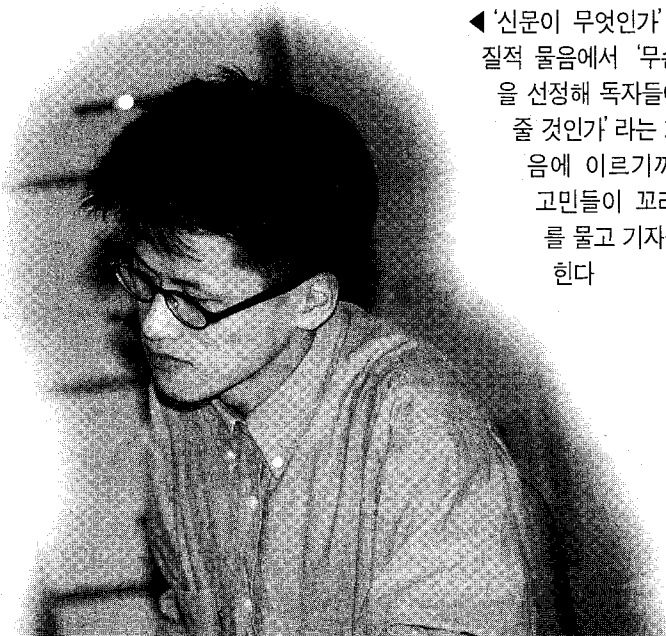
다. 경회를 대표하는 언
론매체로서 경회안에서
일어나는 경회 구성원들
의 이야기에 충실하고
학교안의 문화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다루면
서 본연의 사회 비판적
인 기능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편집혁신과 아
이템 개발, 지면확대등으
로 읽히지 않는 신문에서 읽
히는 신문으로의 변신은 어느정도
성공한 반면, 수준높은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
지 못한점, 최대 다수 독자인 학생들의 민감
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점등은 지난 한해 미
흡했던 점으로 지적된다.

편집혁신과 제호변경으로 새로워진 대학주
보는 이번 43주년 창간호를 기점으로 앞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
러나 양적인 성숙이 올해 질적인 도약으로 거
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회 구성원들의 관
심어린 애정과 비판이 필요하다. 비오는 날엔
비가리개가 되고 차가운 바닥을 가릴때에는
방석이 되어도 좋다. 대학주보는 언제나 독자
들과 함께 하는 신문이 되고 싶다. 물론 대학
주보가 먼저 다가갈 것이다.

〈최수정 편집장〉

◀ '신문이 무엇인가' 라는 본
질적 물음에서 '무슨 아이템
을 선정해 독자들에게 보여
줄 것인가' 라는 가시적 물
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
를 물고 기자들을 괴롭
힌다



▲ 우리학교 학내 대자보들

여론을 실을 배는 많지만 사공이 없다

임 세 환
〈경제학과 96학번〉

대학에서 대자보의 문구들이 학
우들에게 소외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다. 대자보를 통
해 표현되던 대학의 정치성은 80
년대 말 이래로 학생회의 대중적
지지기반의 상실과 함께 많이 약
화되었다. 90년대 후반에 대자보
를 통한 대학의 담론들은 형성되
지 못하고 있다. 요즘을 대자보관
을 메우는 글들은 학생회의 행사
일정 안내나 학우들과는 별개의
문제처럼 인식되는 시대상황에 관
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자연스런
게 과거 80년대와 90년대 초의 대
중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의 구조는
제 위치를 상실했다. 대자보 공간
은 학생회가 공화한 목소리로 점
철되고 학생회가 학우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기제로도 작용하지 못하
고 있다.

대자보가 학우들로부터 직접적
인 여론 수렴의 역할을 하지 못하
자 90년대 중반부터는 학우들의
시선이 보다 많이 머무르는 화장
실이나 도서관에 소자보가 많이
붙는다. 얼마 전 총여학생회에서
학우들의 성의식 조사를 위해 화
장실 곳곳에 붙였던 여론 수렴 자
보도 그러한 종류의 하나이다. 하
지만 총여학생회에서 실시한 자보
를 통한 성의식의 조사는 학우들
의 관심없음을 확인하는 것에 머
무른 한계를 보였다. 반면에 상업
적인 성격의 포스터나 소자보는

그래도 학우들의 관심을 비교적
많이 받는 편이다. 대자보 문화
도, 소자보 문화도 대학의 진정한
여론 형성 도구로서의 역할은 탈
색되었다.

90년대에 통신 ID가 정보화 사
회를 살아가는 개인의 필수 조
건으로 되면서 대학사회에서 필요
로 하는 정보는 주로 통신 공간에
서 수요, 공급된다. 빠른 정보의
공급과 사용하기 편리함이 통신을
이용한 정보 공급을 활성화시킨다.

하지만 통신을 이용하는 학우
들 중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
해 이용하는 학우들은 몇 되지 않
는다. 경회대학교 통신방을 들어
가면 컴퓨터, 음악 등 다양한 분
야로 특수화된 통신방이 있다. 하
지만 그 안에서도 논의되는 것은
심심풀이식 농담이나 미팅에 관한
이야기들이 학우들의 지지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다. 대자보도, 통신에서도 학우들
이 직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기
회는 적고 학우를 또한 무관심하
다.

정보화 사회라고 하지만 정보
를 실질적으로 획득하는 방식은
아직도 과거의 수공업적 방식에
머물고 있고 획득이 용이하도록
정보의 유통이 공개화된 사회적
구조도 이루어지지 않는 오늘날
대학의 모습이다. 정보의 필요성
조차 의심이 되는 대학이지만 정
보의 수요자에게도 공급자에게도
자유로운 정보의 소통을 위한 구
체적인 의지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스크린의 뒤편에서 40년, 이민부 조명감독. 오직 조명 하나로 일가를 이룬 그는,

임권택 감독과 함께 우리 영화의 새로운 중흥기를 이끌어가는 숨은 프로입니다.

이렇듯, 남들이 보여주지 않아도 자신만의 한 길을 완성한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프로라 부릅니다. 효성이 스스

로를 프로라 자부할 수 있는 것

도, 기간산업이라는 한 길로 40여년을 걸어 온 전문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종합무

역에서, 섬유·화학에서, 중공업에서- 우리 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되어온 효성. 다시

일어설 우리나라경제를 위해 이제 효성이 진정한 프로로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모두가 열을 생각할 때 프로는 하나를 생각합니다.

프로정신

효성

조명감독 이민부

이민부가 아니면 태백산맥도 없었다

임권택 감독 크대학사키는 조명기법으로

빛의 미학을 완성한 그는, 우리 영화사에

숨겨진 베테랑 조명감독이다